



연합뉴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 연합뉴스 노조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해 파업을 벌인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소회를 회사 선배들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조합원들의 편지에 공통적으로 담긴 정서는 이해와 공감이었습니니다. 파업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나 지금은 공간을 달리하는 부장 선배와 당신들

이 보기에 '철없는' 자식이 벌이는 파업을 못마땅해 하는 부모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이해해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감해 줄 것을 조합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처지와 파업 결의를 글 속에서 곁길 이 느낄 수 있습니다.

■ 막내급 조합원이 부장급 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시작이 반이다. 케케묵은 말이지만 이만큼 시작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표현해주는문장도 찾기 어렵습니다.

선배, 그만큼 깃대를 들기까지 우리의 고민은 깊었고,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깃발은 결국 들렸고, 이제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선배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은 후배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속으로 우리의 뜻에 동의하시는 분은 '젊으니까 무식하고 용감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은 '어린 탓에 뭘 모르고 시류에 휩쓸려서'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선배보다 깊어진 짐이 훨씬 적기때문에 먼저 발걸음을 땀습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내외의 책임이 늘고, 마음의 짐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진다는 것에 완벽히 감정이입은 못 해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장담도 할 수 없으면서 선배 뉘까지 대신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시작만 해도 반이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절반도 남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선배가 필요합니다. 선배의 짐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 등록금 대출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새내기들, 결혼을 앞뒀거나 2세를 고민하는 주니어들, 신학기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 많은 자녀를 둔 중견급들... 만사 제쳐놓고 모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힘드실 줄 알지만 저희는 선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선배는 저희보다 짐도 무겁겠지만 그만큼 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창 안이 아닌 밖으로 나와보십시오. 기세는 이미 기운 지 오래입니다. 한 발짝만 내딛으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배들께서 한 쪽 발만 디터주셔도 절반도 남지 않은 시간은 바로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얘기합니다. 일단 틀을 만들어서 조금씩, 얼추 맞춰 가보자. 그러면 비슷하게 이상적인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일 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선배들도 아실 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보도 사례, 소통을 위한 기관이면서 도통 대화하기 어려운 사내문화... 이제는 제대로 고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대충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는 바로 잡지 못합니다. 이 시대와 국민, 그리고 조직 자체가 이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잠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입사하고, 일할 때 누렸던 것들을. 그러나 잠시 버티다 영원히 잃는 것보다는 잠시 잃고 영원히 되찾는 게 당연히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통 언론' 연합뉴스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언론입니다. 이는 영원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입니다.

선배, 우리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갈 바라는 자식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뿌리의 한참 묵은 때를 벗겨내 싱싱한 진짜를 되찾고자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선배와 선배의 선배들께서 이뤄주셨던 것들의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으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기를 시키고 방해하는 경쟁자들을 막고, 오래도록 무병하며 뻗어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는 자존심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뿐인 일터를 떠날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선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이 끝나도,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나면, 그 일들은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새로 쌓고 만들어가는일이니까요. 저희는 그 재미 있고 신나는 일을 선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이영재 증권부 조합원

아버지께

지난 주말 내려간 고향은 벌써 벚꽃이 절정을 지나 산들바람에도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집 근처 공원 벚꽃길에서 하늘하늘 날리는 꽃잎을 맞으며 거닐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일하지 않고 소일하는 저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근심 어린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파업 기간 고향에 자주 찾아오니 좋다고 하시면서도 걱정하는 기색은 감추지 못하셨지요. 인터넷에 오르는 기사를 얼마나 꼼꼼히 읽으시는지 파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파업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든 화제를 돌리려 했지요. 당신께서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파업은 대개 이념에 경도된 자들의 행위라는 것이 아버지 세대의 일반적인 시각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듯 언론 노동자도 월급만이 아니라 사회에 진실을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언론 노동자의 자부심은 외압으로 불공정보도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철저히 짓밟힌다는 것을. 저와 제 선배들은 연합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짜라시 언론'으로 낙인 찍힌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무시돼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러하기에 우리의 파업은 정당하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런 제 마음이 통한 것일까요. 한번은 서울로 돌아오는 저를 열차역까지 데려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어찌겠노. 빨리 끝내야지. 파업에서 이기려면 단결이 제일 중요한기라"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23년 만에 하는 파업, 최대한 빨리 승리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자는 연합뉴스와 대한민국 언론이 될 것입니다.



■ 모 조합원이 담당 부장한테 보내는 편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던 부장의 전화가 끊어진 지도 벌써 한달이 다 돼 갑니다. 솔직히 처음엔 편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긴장시키던 전화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부장은 부원들의 지휘관이기에,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마다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습관이 된 것인지 파업중에도 이따금 부장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장도 이번 파업을 맞아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장·부장급 선배들이 내놓은 ‘투표 제안’ 등에서도 회사를 위한 선배들의 충심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후배들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 사태의 빠른 해결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장 파업을 풀기 위한 방법 이외에 ‘연합뉴스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후배들을 파업까지 내몰았던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사원의 반대에도 사장이 연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 그저 묵묵히 따라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찌라시’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은데다 사원들의 파업까지 불러올 정도로 회사가 흔들린 것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파업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자는 후배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불법 파업’이라는 말을 앞세워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으박지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파업 후 계약사들의 불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계약사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당장 많은 양의 기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공정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 아닐까요.

후배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문제들입니다. 부디 관찰자의 모습을 보이거나 “당장 파업이나 풀라”며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후배들과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승리해주시십시오.

아직도 회사 근처에서 만나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드리지만, 조만간 손을 마주 잡고 환한 미소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휘관과 병사로서 일터를 누빌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이 만발했지만, 여전히 아침저녁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 임기창 사회부 조합원

아버지께.

파업 돌입 며칠 전 늦은 저녁이었던가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불쑥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죠.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정부 편을 드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부 소수 좌파일 뿐이다.”

혹 명절이나 돼야 겨우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할 것도 없이 뚱하니 있다 헤어지는 부자시간을 고려하신 거라면 매우 탁월한 선술이셨습니다. 덕분에 그 날 아버지와 꽤 긴, 그리고 나름 ‘격한’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그래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식구 다섯명의 입에 풀칠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짐을 진 당신은 환경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는 쪽이 옳다고 믿으셨겠죠. 그런 당신께 노동조합이니, 파업이니 하는 단어는 철부지들의 몽상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지금껏 노조나 파업과는 거리를 둔 채 오로지 ‘성실하고 정직한 직장인’으로 살아오셨죠.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제게 몸소 증명하신 그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저 역시 사회인으로서 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기자가 성실해야 하고, 저희의 펜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덕목입니다.

저희의 파업은 당신이 추구하신 가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토대를 더 세우려는 소박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기자의 정직과 성실이라는 덕목은 공정보도라는 밑바탕 없이 결코 구현될 수 없으니까요. 그건 좌니 우니 하는 이념지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가라는 장가는 안 가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기자질’로도 모자라 파업에까지 참여하는 아들이 못마땅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저를 믿어오신 만큼만 저와 동지들을 믿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제 바이라인이 달린 기사를 검색하시며 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시는 아버지께, 하루빨리 승리해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립니다.



■ 김동규 뉴스Y 파견 조합원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네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부모님께 쓰는 편지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계신데도 자주 내려가지 못하고 전화도 드문드문 드려 죄송하고, 어머니의 안부 전화를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끊고 다시 전화하지 못했던 기억이 많아 또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론 좀 더 친절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합뉴스가 23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보시고 “무슨 일이냐”며 전화하셨던 게 바로 얼마전 같은데, 파업이 벌써 한 달을 넘겼네요.

아들이 연합뉴스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성 연합 팬’이 되신 두 분께도 파업 소식은 충격적이셨나요. 최근 들어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받은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사장도 낙하산이냐”라는 궁금증부터 “파업해도 월급은 나오느냐”는 걱정까지 질문 세례에 때론 착하게 때론 대충 답변을 드렸었는데, 조만간 궁금증 풀어드리러 내려가겠습니다.

파업이라 일에는 손을 놓았지만, 선후배 동료와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더 많아져 좋습니다.

사실 요즘 선배들에게 더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 것 같은데, “가정이 있는 선배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 힘들겠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좀 뜨끔하네요.

“세상일이 그렇듯 이번 일도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는 아버지의 예언(?)처럼 저희 파업이 순리대로 상처 없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게 살살하라”라는 어머니의 마음도 잘 새기겠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파업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한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니 아들 믿어주시고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최대 관심사이자 걱정인 “연애나 똑바로 잘하라”라는 말씀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 두 손 무겁게 사 들고 가겠습니다. 화사한 봄꽃 축제에 찾아 모시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 김태균 다국어뉴스부 조합원

다음달이면 만나게 될 우리 아가 태희에게.

아빠야. 엄마 뱃속에서 잘 지내고 있지? 항상 초음파 사진으로만 보던 너를 만날 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우리 태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다. 그치? 이제 엄마 그만 괴롭히고 아빠 만날 준비 하자. 아직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태희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엄마랑 아빠는 작년 이맘때쯤 만났어. 그때는 아빠가 연합뉴스라는 회사로 옮긴 지 1년이 되는 날이었고 엄마도 새로운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하는 날이었지.

아빠는 원래 외신기자였어. 외신에 연합이라는 곳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회사야. 아빠랑 친한 일본 특파원 아저씨들은 아빠한테 농담으로 ‘연합사마’(‘윤사마’ 알지?)라고 부를 정도란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 아빠가 일하는 부서 선배들, 동료들 매우 좋은 분들이 많아. 태희가 생겼다고 했을 때도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단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행운으로까지 느껴지더라.

그런 회사에서 왜 파업을 하고 있느냐고? 사실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이 되기도 해. 왜 너희가 다른 언론사 파업하는데 손가락 올리는냐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있잖아. 막상 이직을 하고 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우리 기사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었어. 그 아저씨들한테 ‘연합은 국영통신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참 당혹스러웠어.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입사했는데 선후배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더라고.

아빠가 무슨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혁명을 꿈꾸는 투사는 아니야. 그저 평범하게 보통 세상에서 보통 회사에 다니며 보통 삶을 살아가고 싶은 보통 사람이야. 그런데 이견 아닌 거 같다. 사실을 왜곡하는 편향 보도, 연봉사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각종 차별, 입사한 지 2년 만에 부장이 3번이나 바뀌는 인사. 적어도 이런 회사에서 월급 받아 태희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회사에 다니기는 싫어. 태희도 아빠가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

태희 분유 값이랑 기저귀 값은 어떻게 하느냐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 산후 조리원도 일반실은 예약이 끝나서 특실로 했거든. 그런데 태희 엄마도 아빠한테 그러더라. ‘오빠가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거 싫어’라고.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라고. 엄마 멋있지? 나중에 태희도 엄마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아빠도 이제는 조금 두렵고 걱정이 된다. 태희 만날 준비 해야 하는데, 태희한테 줄 멋진 장난감이랑 옷도 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럴 여유가 없네. 미안하다 태희야. 대신 아빠가 두배 세배로 더 사랑해줄게.

참, 혹시라도 아빠 걱정은 하지마. 우리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함께 하는 선배, 친구들이 있어 마음만은 든든하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만나자.

보고싶다 태희야.

■ 사회부 한 조합원의 아내가 보내는 편지

오빠!

오랜만에 손편지다.

요즘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더 정이 든 것 같네. 무려 편지까지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좋은 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연합뉴스가 파업하는 이유와 목적을 밖에서 바라보는 내가 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예기치 않은 파업 덕분에 오빠가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아주 좋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나에게,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아들에게 남편과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돈으로 사기 어려운 축복이다.

아침에 애들이 일어났을 때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나 공부하고 있을 때 오빠가 사온 커피에 힘이 난다.

파업 초기만 해도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따랐던 애들이 이젠 계속 아빠만을 찾는 것을 보면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한다.

혹시 이번 파업은 열심히 일한 오빠와 회사 동료들이 가족들과 좀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사장의 의도된 배려(?), 일종의 보너스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오빠 인생에서 몇 달 쉬다고 우리가 굶어죽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나 63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알지? ㅋㅋ. 넘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파업에 동참하고 마음껏 동료와 함께해 주길... 다만 낮에 아파트 주위를 방황하더라도 수염은 좀 깎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 보면 인사도 좀 꼬박꼬박 하고. 오빠 모르겠지만, 오빠가 주변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속속 제보가 들어오거든.

그리고 지난번 놀이터에서 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오빠가 대낮에 술을 먹으러 나간 날,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에게 좀 창피했다. 술 먹으러 갈 때도 웬만하면 노트북 가방 메고 어디 일하러 나가거나 중요한 약속있는 것처럼 행동해 주면 고맙겠다.

우리 가족 일동은 언제든 파업이 끝나는 날 오빠를 놓아줄(?) 용의가 있다. 이번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우리 즐겁게 지내자.

- 처음 그 마음으로 여전히 오빠를 사랑하는 아내가

연합뉴스 구석구석 -마케팅국

연합뉴스가 '광고 없는 회사'로 인식되곤 한다. 뉴스 구독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광고 매출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연합뉴스와 보도채널 뉴스Y에서 운영하는 모든 매체의 광고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마케팅국이다.

마케팅국은 마케팅부와 TV마케팅부로 나뉜다. 파업에 참여하는 부서는 마케팅부다. 뉴스Y 출범에 따라 신설된 TV마케팅부는 전 부서원들이 입사 1년이 채 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케팅부는 다시 공공부문팀(4명), 산업팀(4명), 생활경제팀(4명), 금융팀(3명), 관리팀(5명·파견사원 1명 포함) 등 5개 팀으로 꾸려져 있다. 20여

명 되는 마케팅부가 담당하는 광고 매체는 연합뉴스 인터넷, KTX 이동방송, 인천국제공항철도, 이매진, 연감 등으로 다양하다.

마케팅부 조합원들은 회사 수익을 담당하는 부서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파업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매출이 발생하거나 광고주가 파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 업무 요청을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동안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측의 업무복귀명령을 계기로 팀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빠른 사태해결을 위해 노조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마케팅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 현장에서 불공정보도의 사례로 광고 관련 부분이 자주 언급되는 데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한 조합원은 "광고 수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기사와 광고·협찬을 '딜'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데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마음아픈 구석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수익부서 처지에서 보면 공정보도는 순수하게 수익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언론사가 공정보도에 자유롭게 임하려면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 있는 수익구조(광고매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쟁의 기운을 받으러 가자 남산으로!



파업으로 피로해진 심신, 명상으로 충전을!

